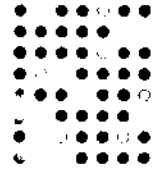


21세기 한국 메가트랜드 4

## 21세기 한국 정치의 비전과 과제

임혁백 외 지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편



민음사

13호, 2002. 7.

한국전산원,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해설서』, 1996. 9.

최홍석, 「IT혁명시대의 정책전략: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IT심포지움 발표논문집』, 2002

한국전산원,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분석』, 2000.

한국정책지식센터, 『공공개혁 우수사례집』, 나남출판, 2002.

한세연, 「지식정부의 구조와 기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000.

\_\_\_\_\_, 「행정지식 시스템의 이해와 접근: 행정정보 시스템의 진화 가능성 모색」, 《한국행정연구》 10권 2호, 2001.

\_\_\_\_\_,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방안」, 서울행정학회 정보화정책세미나, 2003. 7.

황종성, 「전자정부의 쟁점과 연구동향」, 《정보화정책》 10권 제3호, 2003 가을.

주 문, 「IT혁명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전진하는 전자정부. 2000. [http://www.seri.org/wb/wbThemV.html?s\\_menu=020303&pub\\_key=wb20000902366&search\\_gubun=1](http://www.seri.org/wb/wbThemV.html?s_menu=020303&pub_key=wb20000902366&search_gubun=1)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World Public Sector Report 2003: E-Government at the Crossroads," 2003. 8.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World Public Sector Report 2002: Benchmarking E-Government," 2002. 6.

## 1 머리말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오늘날 정보기술의 발달은 기술·산업·경제 차원의 변화를 넘어서 정치·군사·외교·문화 영역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화(情報化, informatization)로 개념화되는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국내적 범위를 넘어서 급속하게 국제적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정치의 구조와 과정 및 체제의 수준에서 다차원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IT분야의 기술혁신과 컴퓨터의 보급이나 IT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국제적 경쟁이 세계정치의 패권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다. 인터넷과 인공위성 및 각종 통신기기의 보급에 따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정보가 상호 교류됨으로써 세계는 더욱 밀접하게 상호 의존하게 되었다. IT의 확산은 전쟁과 외교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이들 영역에 비국가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국제적 무역과 금융의 활동을 사이버공간에까지 확대시키고 시민사회운동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국가(nation-states)를 중심으로 작동해 오던 근대 국제체계의 모습을 질적으로 변형시킬 조짐마저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정치질서의 태동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소위 21세기 메가트렌드의 일환으로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정치질서의 내용을 정보화의 맥락에서 밝혀보려는 데 그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는 근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정치질서를 넘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소위 탈근대(post-modern) 세계정치질서의 동인(動因)과 미래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점차로 증대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이 글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변화하는 세계정치질서의 실체를 '정보세계정치학(the global politics of information)'의 시각에서 개념적·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한국의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논의의 자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등장하는 세계정치질서의 내용을 세계정치질서의 권력 이동과 국민국가의 재조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다.

부연컨대 정보화 시대 세계정치의 변화는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이 부상하는 데에서 발견된다. IT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을 생산·활용·공유

하는 과정이 국가업무의 중심이 되는 '지식국가(knowledge state)'의 달성이 세계정치질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핵심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세계정치의 권력 이동은 국제정치의 분석 단위로서 국민국가가 누려온 특권적 지위가 재조정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정보·지식의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세계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로 증대되면서 국가-비국가 행위자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가 세계정치질서의 새로운 구성단위로서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정보화는 국가적 부(富)와 강(強)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정치의 목표로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구하는 주체의 존재양식까지도 변화시키는 '구성적 동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sup>2)</sup>

이 글은 국제정치학의 개념과 이론들을 원용함으로써 정보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보화 시대 세계정치질서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도했다. 우선, 정보산업에서 발견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정보화 시대의 소위 '세계 지식구조(global knowledge structure)'의 내용을 개념화하고, 그러한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의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대항 전략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다음으로, 사이버공간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재조정 국면에 들어선 국민국가의 새로운 존재양식을 국제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검토했다. 끝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전략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세계정치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전략적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1) 세계화와 세계정치질서의 변화에 대한 국제정치학의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John Baylis and Steve Smith(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Editio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한편, 정보화와 세계정치질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서로는 James N. Rosenau and J.P. Singh(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Albany, NY: SUNY Press, 2002) 참조.

2) 세계정치 변화의 구성적 요소로서의 정보기술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논의로는 김상배,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2003년 겨울호), 33~58쪽 참조.

## 2 정보화 시대 세계정치의 권력 이동

### 1) 기술·정보·지식의 구조적 권력

정보화의 세계정치적 함의는 IT의 발달이 세계정치의 권력 자원과 권력 메커니즘의 변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sup>3)</sup>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국제정치의 장에서 국가는 행위의 지침으로서 물질적 차원에서 파악되어 측정 가능한 권력자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물질적 권력(material power)은 주로 상대방 행위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된 권력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권력은 영토, 인구, 무기나 군대, GNP, 에너지 생산량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자원에 기반을 둔 능력에 의해 측정되고 평가되는데, 국제체제의 구조와 그 작동은 국제정치 행위자들 간의 이러한 물질적 권력의 상대적 분포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자원의 보유, 즉 '잠재적 권력'이 어떻게 상대방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영향력, 즉 '실질적 권력'으로 변환되는지의 문제가 물질적 권력 개념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sup>4)</sup>

정보화의 진전은 이러한 물질적 권력 개념의 확장 및 수정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현대 세계정치에 있어서 기술·정보·지식은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 권력 자원이

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술·정보·지식이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최근 IT의 발달은 '권력 이동(powershift)', 즉 권력의 중심이 군사와 경제에서 지식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야기하며,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비견되는 새로운 제4의 생산요소의 등장 가능성을 한다.<sup>5)</sup> IT가 세계정치에서 지니는 권력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 최근의 사례들로는 반도체 생산량, PC의 보급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수, 인터넷에 접속된 서버 컴퓨터의 수, 개설된 웹사이트의 수 등의 지표가 국력을 재는 범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가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려는 데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1980년대 이래 '국제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기술의 개발과 인적 자원의 양성을 통해 정보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소위 동아시아형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수행이 바로 이러한 물질적 권력의 개념에 기반을 둔 국가적 노력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보기술과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민간 또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술·정보·지식 등을 중요한 물질적 권력 자원으로 보는 발상에서 기인한다.<sup>6)</sup>

또한 기술·정보·지식 자원의 부상은 이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을 주요한 외교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다.<sup>7)</sup> 예를 들어, 정치 군사적 현안에

5) Alvin Toffler, *Power Shift*(New York: Bantam Books, 1990); Peter F. Drucker, *Post-capitalist Society*(New York: HarperBusiness, 1993).

6)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진행된 국제정치 경제적 연구로는 미국 버클리 대학의 BRIE(Berkeley Roundtable of International Economy)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작업들을 들 수 있다. Laura D. Tyson,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Jeffrey A. Hart, *Rival Capitali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Western Europe*(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7) 김상배, 「정보화 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6(3)(2002년

3) IT가 세계정치권력의 다층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상배,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오름, 2001), 305~330쪽 참조.

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New York: Alfred A. Knopf, 1948); Jeffrey A. Hart and Sangbaek Kim,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in Jose V. Cippriotti, ed., *Of Fears and Foes: Security and Insecurity in an Evolving Global Political Economy*(Westport, Conn.: Praeger, 2000), 35~58쪽.

뜻지않게 기술 이전, 기술 표준, 지적 재산권, 문화 콘텐츠 등의 IT 관련 쟁점들을 둘러싼 국제적 현상은 최근 들어 부쩍 국가 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는 '지식 주권(knowledge sovereignty)'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식 외교(knowledge diplomacy)'의 분야는 정보화 시대 세계 지식 질서의 새로운 국제 규범의 설정을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IT의 발달은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정치에서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의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구조적 권력이란 행위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나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영국의 국제정치 경제학자인 수전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에 의하면, "구조적 권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 즉 국가 간, 개인 간, 기업 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하는 틀을 구성하는 권력"이다.<sup>9)</sup> 구조적 권력에 대한 논의의 주요 관심사는 주어진 제도나 구조적 환경을 경유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과 더 나아가 그 제도와 구조적 환경을 변경하는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누가 기존의 제도와 규범 하에서 제약받고 있으며, 누가 새로운 제도나 규범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인데 IT가 구조적 권력의 의미를 갖는 것은 그 기술적 특성상 바로 이러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기술은 표준과 규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정치의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표준화(standardization)나 표준경쟁(standards competition)의 문제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 기술과 관련된 세계정치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정보기술이 갖는 구조적 권력으로서의 성격은 지적 재산으로서의

기술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내의 규범에 대한 관심이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확산되는 맥락에서도 발견된다.

한편 IT의 발달은 문화적 규범 형성의 권력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IT의 발달은 상대방의 정체성, 이해관계, 가치체계 등의 구성 및 재구성에 작용하는 권력의 부상에 관련된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 형성의 권력은 흔히 '연성 권력(soft power)'<sup>10)</sup> 또는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이라고 불리는데, 설득이나 동의의 메커니즘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제도규범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는 행위를 얻어내도록 작동하는 또 다른 의미의 '구조적 권력'이다. 이러한 연성 권력의 주요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하게 함으로써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에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과 이해관계 등의 재구성 과정이 다른 권력관계나 권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이해는 주로 탈근대주의(post-modernism)의 권력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sup>11)</sup>

IT가 이러한 연성 권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정보처리 과정, 즉 문화와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지식의 생산·분배·소비 과정에까지 연결된다는 면에서 발견된다.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대두되고 있는 정보 서비스나 콘텐츠 산업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문화는 궁극적으로 그 이용자의 가치나 관념의 체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연성 권력의 원천이다.<sup>12)</sup>

9)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New York: Basic Books, 1990).

10)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edited by M.C. Gordon(Brighton: Harvester, 1980).

11) 김상배, 「정보기술 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가을호), 269 ~ 288쪽.

8) Susan Strange, *State and Markets*(London: Pinter Publishers, 1988).

세계정치의 과정에서 생산·활용되는 지식은 그것이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널리 공유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디지털화나 지식화가 질적인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지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상징적 지식의 전세계적 전파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의 등장은 세계정치와 외교의 대상과 영역이 전통적인 의미의 여론 주도층으로부터 보다 넓은 의미의 대중 일반에 까지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도처의 대중에게 자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연성 권력 행사의 채널이 마련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화의 진전이 세계정치의 권력 개념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 차원의 '권력 이동'으로 요약된다. 우선, IT의 발달이 세계정치의 권력 자원을 가시적이고 영토성에 기반을 둔 군사·경제적 자원으로부터 비가시적이고 탈영토적인 성격의 기술·정보·지식 자원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은 세계정치권력의 작동 매커니즘을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서 행사되는 '관계적 권력(relational power)'을 넘어서 구조적이고 규범적이며 문화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연성 권력이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정치에서 독자적인 권력구조로서의 '세계 지식구조(global knowledge structure)'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화는 세계 지식구조의 새로운 '물질 토대(material base)'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정치의 영역에서 소위 '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해당하는 부분이 독자성을 가지고 부상하게 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12)</sup>

수전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의 개념화에 의하면 '지식구조'란 "어떤 지식이 생산되고, 어떻게 저장되며, 누가 어떤 수단을 통해 누

구와 어떠한 조건 하에 커뮤니케이션 하는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의미한다.<sup>13)</sup> 이러한 지식구조는 유사 이래 존재해 왔지만 최근 정보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더 교묘한 형태로 재구성되면서 세계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구조의 재구성에 있어서 그 구성적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보기술의 향배를 장악하는 측이 지식구조의 핵심, 더 나아가 세계정치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보화의 진전에 힘입어 지식의 세계정치가 기존의 안보나 경제의 세계정치에 대한 셋방살이의 신세를 털어 버리고 제3의 영역으로서 담기야 독립선언을 할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롭게 강화된 지식구조는 스트레인지가 말하는 다른 세계정치의 구조, 즉 안보구조(security structure), 금융구조(financial structure), 생산구조(production structure) 등의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 지식구조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러한 구조에서 작동하는 세계정치의 권력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 글은 지식 변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구조적 단면을 이해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정보산업(특히 컴퓨터 산업)과 문화산업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다층적 동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기술 표준, 지적 재산권, 문화 콘텐츠 등의 쟁점은 IT분야의 주도권의 향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 사례들은 IT분야에서 차지하는 그 사체의 중요성에 못지않게 정보화 시대를 맞는 세계정치 전반에 걸쳐서 지식의 생산과 확산 및 공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지식구조의 모습을 응축적으로 드러내 주는 축소판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벌어지고 있는 정보산업, 특히 컴퓨터 산업의 표준 경쟁과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한다.

12) 권,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오름, 2001), 305~330쪽.  
13) 김상배, 『정보화 시대의 지식구조: 수전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2004년 가을호), 256~276쪽.

13) S. Strange, *States and Markets*. (London: Pinter Publishers, 1988), 121쪽.

## 2) 정보산업과 세계 지식구조

최근 IT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보산업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경쟁의 초점이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추구하는 '제품 경쟁'의 형태에서 기술 게임의 규칙을 장악하려는 '표준 경쟁'의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보산업 경쟁에서의 최종 승자는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생산하는 측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사실상(*de facto*)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구조적으로 지배하는 측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순한 일차원적인 물질적 권력의 게임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구조적 권력의 게임이 정보산업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정보산업계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표준경쟁의 예로 VTR시장에서의 소니 진영의 Beta와 마쓰시다 진영의 VHS간의 표준 경쟁, 일본과 미국, 유럽의 국가들 간의 HDTV와 디지털TV의 표준을 둘러싼 경쟁, 이동통신의 표준을 둘러싼 동기식(CDMA)와 비동기식(TDMA) 진영 간의 표준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기술 표준 경쟁의 예는 컴퓨터 산업의 PC아키텍처 표준 경쟁일 것이다. PC아키텍처의 표준 경쟁은 IBM 호환기종의 개인용 컴퓨터인 PC시리즈와 애플의 매킨토시 시리즈 간의 경쟁이었다. 비록 컴퓨터 애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매킨토시의 아키텍처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IBM 호환기종의 그것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시장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14) 경제학의 용어를 빌려 기술 표준 경쟁이 대두되는 구조적 권력의 차원을 설명하자면, 일단 어느 정보산업 분야에서 기술 표준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한 '선발자의 이익'이 확립되면, 이는 곧 '지배적 표준'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정보산업 분야에서 특정 행위자에 의해 일단 '사실상 표준'이 장악되면, 소비자들은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다른 기술 표준으로의 '전환비용(*switching costs*)'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베커니즘은 기존의 시장에 새로운 참가자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시 말해 표준경쟁의 영역은 승자가 모두 갖는 소위 '수확체증'의 영역이다. W. Brian Arthur, "Increasing Returns and the New World of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July-August, 1996), 100~109쪽.

IBM 호환기종 측이었다. 그 성공의 비결로 IBM 호환기종 진영이 '개방 표준'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기술발전과 저변 확대의 기회를 높이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 기반들에 호소했다는 점이 거론된다.<sup>15)</sup>

그런데 이러한 IBM 호환기종 컴퓨터 성공의 최대 수혜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PC를 처음으로 개발한 IBM이라기보다는 PC운영체계를 공급하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했던 인텔이었다. MS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와 인텔(Intel)의 두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윈텔(Wintel)' 또는 '윈텔리즘(Wintelism)'은 1980년대 초반 이래 PC의 아키텍처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두 기업의 구조적 지배력을 빚대어서 붙여진 용어이다. 특히 윈텔리즘은 단순히 두 기업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라기보다는 PC아키텍처의 표준 연합체로서의 MS와 인텔의 독특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이래 윈텔 표준 또는 IBM 호환 표준은 PC아키텍처의 사실상 표준을 주도하면서 컴퓨터업계의 패권을 누려왔다.

세계 PC산업에서 윈텔리즘의 성공 비결은 소위 '개방과 소유(*open-but-owned*)'의 동시적 표준 전략의 채택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개방 표준을 채택하여 호환기종 생산자들을 허용함으로써 윈텔 표준의 저변을 확산시키고, 지적 재산권의 기제를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source code*)의 무절제한 유출을 막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윈텔의 성공 비결은 1980~1990년대에 걸쳐서 PC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IBM 호환기종의 판매가 증가하던 컴퓨터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발견된다. 다시 말해 IBM 호환기종 생산자들이 인텔의 반도체칩과 MS의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한,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IBM 호환기종을 위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시하면 할수록

15) David B. Yoffie(ed.), *Compe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Peter Grindley, *Standards Strategy and Policy: Cases and Storie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원텔의 수익은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베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펜티엄칩과 윈도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컴퓨터의 부품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산업에 진입하려는 모든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게임의 규칙을 제공하는 구조적 권력의 담지자 또는 컴퓨터 산업 분야 세계 지식구조의 지배자였던 것이다.<sup>16)</sup>

한편, 윈텔리즘은 단순히 컴퓨터 산업에 대한 MS와 인텔의 구조적 지배라는 차원을 넘어서, 윈텔의 성공을 뒷받침한 산업구조와 정책 및 제도 환경과 같은, 넓은 의미의 권력, 즉 '제도 표준의 등장'을 의미한다. 실제로 윈텔이 성공한 이면에는, 흔히 '실리콘밸리 모델(Silicon Valley model)'이라고 불리는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의 산업구조의 등장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탈집중 네트워크(decentralized network)'의 형태를 띠는 산업구조의 등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미국형 '조절국가(regulatory state)'의 역할이 일정 정도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윈텔리즘으로 파악된 산업구조의 탈집중 네트워크화 경향은 PC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PC시대의 컴퓨터 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컴퓨터 산업부문을 넘어서 방송이나 통신과 같은 여타 다른 정보산업 부문들, 또는 디지털 융합을 배경으로 하는 정보산업 일반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sup>17)</sup>

16) 윈텔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일본 컴퓨터 산업의 좌절에 대한 사례 연구로는 김상배,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국가전략》, 8(2)(2002년 6월호), 5~27쪽 참조. 또한 윈텔의 구조적 권력에 대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좌절에 대한 사례 연구로는 김상배, 「정보화 시대의 한국 민중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7(1)(2003년 봄호), 409~429쪽 참조.

17) 김상배, 「정보화 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2001년 겨울호), 359~376쪽; Sangbae Kim, "Hardware Institutions for Software Technologies: The Japanese Model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9(1)(June 2002), 17~36쪽.

결과적으로 볼 때 윈텔리즘의 등장은 1980년대에 이르러 한때 쇠락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재도약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윈텔리즘으로 표상되는 탈집중 네트워크형의 기업조직과 산업구조 및 제도 환경이 컴퓨터 산업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즉 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전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다시 말해, 컴퓨터 산업의 권력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 제도 환경의 마련이 필수적인데, 실리콘밸리의 업적을 이룩한 미국의 선례는 일종의 '선행 모델'로서 받아들여져 모든 경쟁기업과 경쟁국가들이 이를 모방하는 과정에 접어들게 한다. 최근 소위 신자유주의적 권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등을 조정하려는 한국의 노력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이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는 '수입된 제도'에는 반드시 일정 정도의 가치관이 묻어오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윈텔리즘의 '제도 표준'에 자국의 제도를 적응시키려는 과정에서 미국의 비즈니스 문화나 나아가 미국적 가치관마저도 정보화 시대의 '문명 표준'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베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윈텔리즘은 '정보문명(information civilization)'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윈텔리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세계 지식구조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하나의 사례는 바로 지적 재산을 둘러싼 세계정치이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보

18) Jeffrey A. Hart and Sangbae Kim,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U.S. Competitiveness: The Rise of Wintelism," *The Information Society*, 18(1) (February, 2002), 1~12쪽; Sangbae Kim and Jeffrey A. Hart,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Wintelism: A New Mode of Power and Governance in the Global Computer Industry," in James N. Rosenau and J. P. Singh(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Albany, N.Y.: SUNY Press, 2002), 143~168쪽.



산업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요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연구·개발된 기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불법 복제되거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의 과정을 거쳐서 해제(decompile)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또는 해당 국가가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컴퓨터 산업의 경우에도 기술 표준경쟁의 '방어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차원에서 기업 간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 재산권 분쟁은 기업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각국의 정부가 개입하면서 국가 간 분쟁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들어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기업 간 소송의 차원을 넘어서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면서 기술 개발자로서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형태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적 차원의 제도가 성립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WTO의 지적 재산권 관련 규정인 TRIPs나 WIPO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새롭게 짜여진 지적 재산권의 국제 레짐은 세계정치경제의 장에서 기술 개발자 측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용한다.<sup>19)</sup> 특히 미국 정부나 기업이 주도가 되어 이러한 지적 재산권 관련 권력이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부과되는 과정에서 종종 해당국과의 소위 '체제 마찰(system friction)'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이 기술 개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적 재산권 관련 국제규범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는 서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지적 재산권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인 동시에 인간의 가치·노력·보상 등에 대한 서구적 법사상 내지는 가치체계까지도 수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

다. 지적 재산권 분쟁이 문명 표준의 수용 과정에 연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sup>20)</sup>

요컨대, 21세기를 맞는 정보산업 분야에 존재하는 세계 지식구조에 대한 사실상 패권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사례는 미국의 지식 패권(knowledge sovereignty)이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의 단초를 엿보게 하는 일례에 불과하다. 정보산업에서만 아니라 군사·정치·경제·문화·환경 등을 포괄하는 세계정치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미국은 기술·정보·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공유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롭게 짜여지는 세계 지식질서의 핵심에서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미국의 지식 패권에 대한 대항담론도 동아시아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디지털 융합 현상의 가속화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컴퓨팅이 보편화되면서 PC시대에 뿌리를 둔 윈텔리즘과 경쟁하는 다양한 도전의 비전들이 생성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주로 미국의 산업계를 중심으로 생성된, 초창기 네트워크 시대의 도전의 비전들은 거의 대부분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팅 환경을 전제로 하는 '유선 인터넷(wired internet)'의 비전들이었다. 이에 반해서 1990년대 중반 이래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PC시대의 비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의 양상을 띠고 있다. 기존의 유선 인터넷과 PC 중심성을 허물려는 도전 중에서도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무선 인터넷(wireless internet)'과 디지털 정보가전의 비전이다. 이러한 대항적 담론형성의 이면에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IT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의 야심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지적 재산권의 분야에서도 기존의 지적 재산권 질서에 대한

19) Susan Sell,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0) 김상배, 「지적 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2002년, 7월호), 111~130쪽.

대항담론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니라 배타적 권리로서의 '저작권(copyright)'으로서의 근대적 지적 재산권 개념에 대응하는 '저작권(copyleft)'의 도전이다. 초기 정보산업에서는 지적 재산권 진영의 주도로 기술 개발자의 이익과 관념을 반영하는 제도로서의 국내외적 규범이 대내외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최근의 양상은 이에 대항하여 기술 사용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민사회 진영의 결집이 눈에 띈다. 윈텔에 대한 내안적 운영체제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리눅스(Linux)가 지난 몇 년간에 보여준 성장의 잠재력은 이러한 정보 공유운동이 단순히 기술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관념 차원의 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적 재산권 진영에 반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이나 국가까지도 가세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3 정보화 시대 국민국가의 재조정

#### 1) 네트워크 세계정치 등장

정보화에 따른 기술·정보·지식 변수의 등장은 세계정치의 권력 이동이라는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이해되던 세계정치질서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국민국가라는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엮어지는 집중의 제도 환경이 종전에 세계정치에서 차지하던 독점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국민국가를 유일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간주해온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기본 전제를 침식한다. 근대 이래 국민국가는 국경에 의해 구획된, 지리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영토주권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최근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국민국가 중심의 소위

웨스트팔리아 체계가 다양한 도전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 재조정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데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민국가의 국경은 초국가적 논리를 지닌 자본·상품·정보·기술·범죄·질병·공해 등의 흐름에 의해 침투되고 있으며, 국민국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영토 주권적 권위를 침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1)</sup>

구체적으로 정책 결정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기술·정보·지식 영역은 전문화·세분화는 국가가 모두 떠맡기에는 벅찬 지식 집약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더군다나 해당 분야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정책 결정의 주요 과정으로서 이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거나 차후 정책수행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국 지식의 세계정치는 더 이상 국가영역에만 배타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으며, 실제로 다양한 기업이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계정치 주체의 네트워크화를 요구한다.<sup>22)</sup>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 시대 세계정치질서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인 '네트워크의 세계정치'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의 세계정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영역의 테두리를 넘어서 시민사회영역의 사회단체, 기업, 학계 등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엮어내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기구,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을 모두 참여시켜서 만들어내는 '공공정책 네트워크(public policy networks)'의 필요성도

21)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2) 김상배,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1)(2004년 3월호).

제기되는 것이다.”<sup>23)</sup> 이하에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네트워크 세계 정치가 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구성적 요소로서의 IT의 발달이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IT를 둘러싼 국제체제의 패권구조 변동에서 발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주의 진영 내에서도 기술 변화와 구조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태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는 국제정치 경제학적 연구들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길핀(Robert Gilpin)<sup>24)</sup>은 국가 간, 산업부문 간에 발생하는 불균등한 기술 발전이 권력 분포의 상대적 변화의 핵심요소라고 파악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선도 부문(leading sector)의 세계정치적 의미에 주목한다. 특히 모델스키(George Modelski)와 톰슨(William Thompson)<sup>25)</sup>은 보다 더 명시적으로 선도부문의 부침과 세계 패권의 흥망을 연결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선도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국제체제에서의 패권국이 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선도부문과 패권 변화에 대한 논의는, 기술과 세계정치 변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를 기본단위로 한 패권 변화 또는 권력 배분의 상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신현실주의적 구조 변화에만 주목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3) Wolfgang H. Reinecke, "The Other World Wide Web: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Foreign Policy*, 117(1999/2000), 44~57쪽.

24)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Robert Gilpin,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in the 21st Centur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25) George Modelski and William R. Thompson,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6); William R. Thompson, "Long Wav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lative Decli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Spring, 1990), 201~233쪽.

이러한 점에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추구되는 도구적인 목표로서의 IT가 야기하는 역설적 변화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다. 즉, 대상으로서의 IT가 주체로서의 국가의 기능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물질적 동력으로서 작동한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I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권력의 핵심적 요소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국가 행위자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IT와 같은 지식 자원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국가인식의 변화는 세계정치에서 권력의 원천과 소재가 변화하는 권력 이동의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진행된다.<sup>26)</sup> 그런데 이러한 국가 목표와 국가인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기능적 성격을 근대 이래의 '부강(富強)국가'로부터 '지식국가'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정치의 권력 게임이 '위세 게임(prestige game)'과 '국부 게임(wealth game)'으로부터 '지식 게임(knowledge game)'으로 변화한다는 인식이나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s)와 무역국가(trading states)를 넘어서는 버추얼 국가(virtual states)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27)</sup>

그런데 지식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의 가속화는 국가의 성격 변화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아닌 새로운 행위자들이 세계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IT의 발달이 창출하는 탈집중의 제도 환경에서 국가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자, 즉 적자(適者)는 아니다. 오히려 IT가 창출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의 능력을 갖고 정보와 지식이 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행위자는 국가보다는 다국적

26) David Rothkopf, "Cyberpolitik: The Changing Nature of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Spring, 1998), 325~359쪽.

27) Shumpei Kumon and Akihiko Tanaka, "From Prestige to Wealth to Knowledge," in Takashi Inoguchi and Daniel I. Okimoto(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2(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64~82쪽; Shumpei Kumon, "Can Japan Succeed in Chigyo-Ka,";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New York: Basic Books, 1999).

기업이나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이다. 다시 말해, IT는 디지털 경제의 영역에서 초국적인 생산과 금융의 네트워크를 수립한 다국적 기업들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세계시민사회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보다 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IT의 발달에 따른 주요 행위자들의 부침 현상은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갈등의 유형을 창출할 가능성을 낳고 있다. 한편, 국가의 약화와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이라는 현상은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IT분야의 산업정책이나 통신분야의 규제정책 등에 있어서 국가가 중심이 된 집중형 거버넌스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새로운 IT환경 하에서 국가는 안과 밖의 새로운 경쟁자들과 적자생존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재조정 과정에서 정보기술은 국민국가의 관리능력과 주권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이에 따른 세계정치질서의 심층적 변화를 부추기는 주요한 구성적 요인이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이 그러한 도전세력에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 그 자체가 국가의 능력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 만들어낸 초국가적 환경인 사이버 공간에서 세계정치의 행위들이 발생하면서 국민국가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 정체성(nationality)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국민국가

의 시민(citizen)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면서 개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네티즌(global netizen)으로서 행위한다.”<sup>28)</sup> 이러한 와중에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등장은 세계정치의 영토성(territoriality)을 잠식한다. 인공위성이나 글로벌 미디어와 같은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술들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국민국가가 그어놓은 경계를 허무는 데 기여했다. 요컨대 국민국가의 역할과 권위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더욱 약화되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국내외 정치질서 전반의 재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이래 영미 국제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아우르며 작동하는 새로운 세계정치의 탈집중 관리양식의 등장을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소위 ‘다중심적 세계(the multi-centric world)’에서 국가로부터의 권위의 분산,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 확산, 비국가 행위자나 사회운동단체 또는 기타 초국가적 집단행동의 역할 증대 등의 현상이 국민국가의 정부로 하여금 정부 간 또는 정부와 기타 비국가 행위자 간의 상호 작용의 양식을 변경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은 국가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국제정치의 작동방식이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네트워크화되고 탈집중되는 경향을 담아내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정치질서는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아우르며 작동하는 ‘탈집중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것이 예상된다.”<sup>30)</sup>

28) Tiffany Danitz and Warren P. Strobel, "Networking Dissent: Cyber Activists Use the Internet to Promote Democracy in Burma,"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3,(February, 2000). [http://www.usip.org/vdi/vdr/vburma/vburma\\_intro.html](http://www.usip.org/vdi/vdr/vburma/vburma_intro.html)(검색일: 2002년 4월 14일)  
 29) 김상배, 「정보화 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2001년 겨울호), 359~376쪽; Sangbae Kim and Jeffrey A. Hart,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An Evolutionary Model of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William R. Thompson (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New York: Routledge, 2001), 285~314쪽.

30) Jessica T. Mathews, "Power Shift: The Age of Non-State Actors," *Foreign Affairs*(January/February 1997), 93~105쪽.

31) James N. Rosenau,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그렇다고 새로운 IT환경에서 국가가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대체되어 완전히 도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보세계정치는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득권이 작동하는 정치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sup>32)</sup> 이러한 공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호 의존의 추세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T가 영토국가에 대해서 도전의 능력을 제공하면서 '버추얼 국가(virtual state)'가 등장하는 형태로 국가가 소멸할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하지만, '현실국가(real state)'로서의 영토국가가 담당했던 전통적 기능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주권국가가 차츰 '실제화(realization)'되는 과정에 접어들었으며, 그 역할과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실제로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환경 자체의 선택에 관여하는 국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결국 IT가 야기하는 세계정치의 변화는 국가의 소멸보다는 부단한 '제도 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로 국가의 형태가 변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IT를 매개로 하여 국가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의 출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보화 시대의 세계정치질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세계정치의 '사실상(de facto)'의 구조가 변화하는 측면 이외에도 소위 세계정치의 '법률상(de jure)'의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s) 또는 국제제도의 변화에서도 발견된다.<sup>33)</sup> 우선, 탈집중 네트워크를 속성으로

하는 IT,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에 적합한 제도 환경의 등장을 요구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통신 레짐이나 지적 재산권 레짐 또는 서비스 무역 레짐 등에서 나타나는 구조변화의 사례들은 IT환경의 도래에 적응하는 국제 레짐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존에는 정부 간(inter-governmental) 레짐이었던 이러한 분야에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참여하면서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이 예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행위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간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형태와 국제 레짐 차원의 변화는 정치적 단위체 자체의 상호 구성원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권위의 아키텍처, 즉 세계정치질서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T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국제체계의 기본구조에 대한 관념, 즉 근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질서에 대한 관념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IT가 변화시키고 있는 근대 국제정치의 구성원리 중의 하나가 바로 주권(sovcreignty)의 원칙이다. 실제로 정보화 시대를 맞아 근대적 국가주권의 관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침식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IT분야의 지식주권(knowledge sovereignty)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례일 것이다. 여하튼 새롭게 출현하는 탈근대 세계정치질서의 관념은 다층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다면적 제도체(multiperspectival institutional forms)' 또는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

*Continuity*(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James N. Rosenau,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995), 13~43쪽.

32)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s*, 77(5)(1998), 84쪽.

33) 기술 변화와 국제 레짐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로는 Peter F. Cowhe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s: The Political Roots of Regimes for High Techn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Spring

1990), 169~199쪽; Mark W. Zacher and Brent A. Sutton, *Governing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Regimes fo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William J. Drake, "The Rise and Declin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 in Christopher T. Marsden(ed.), *Regulat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London: Routledge, 2000), 124~177쪽 참조.

의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sup>34)</sup> 로즈나우(James Rosenau)가 묘사하고 있듯이, 분화(分化, fragmentation)와 통합(統合, integration)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분합(分合, fragementation)'의 세계정치에 대한 관념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35)</sup>

## 2) 사이버공간과 네트워크 국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등장하는 네트워크의 세계정치를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사이버공간이다.<sup>36)</sup> 사이버공간상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의 제도화는 탈집중 네트워크의 등장을 보다 더 극명하게 반영한다. 사이버공간은 상징적이고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상호작용을 통해 등장하는 비추얼 공간(virtual space)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제도화는 물리공간의 제도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인터넷 기술 고유의 내재적 속성을 보다 더 용이하게 반영하는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해, TCP/IP와 www 등의 인터넷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구성방식은 정보기술이 접맥되는 물리공간의 그것보다 더 복잡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영토적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는 선형적으로 부여되는 최상위 권위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사이버공간에는 개인과 집단이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34) Stephen J. Kobrin, "Back to the Future: Neomedievalism and the Postmodern Digital World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Spring 1998), 361~386쪽; John G.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 (Winter 1993), 139~174쪽.

35) James N. Rosenau,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36) 하영선 편,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베스트 사이트 1000 해제』(이슈투데이, 2001); 김상배, 「사이버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유석선 외,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 여섯 가지 쟁점과 미래전략』(한울, 2003), 170~218쪽.

노드(node)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노드들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형성 중인 탈집중 네트워크형 관리구조 속에서 국민국가의 역할과 권위는 어떻게 재조정되는가? 근대 국민국가는 국경(borders)에 의해 구획된, 지리적으로 상호 배타적인 영토주권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최근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질서가 완전히 쇠퇴했으나 아니면 아직도 확고히 유지되고 있느냐는 양극단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국민국가가 상당 부분 재조정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데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가의 능력과 권위의 약화가 나타나는 양상을 사이버공간상의 안보와 상거래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세 분야에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인터넷의 확산은 영토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가 독점해온 안보 유지능력의 물적 토대를 잠식하고 있다. 현재 세계정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간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전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사이버공간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온 군사력의 개념뿐만 아니라 군사전략과 안보의 개념 자체도 그 기저에서부터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범죄자들에 의해 도발될 소위 '비대칭적 전쟁(asymmetric wars)'의 효과성을 크게 부추겨 놓고 있다.<sup>37)</sup>

정보화 시대에 이러한 비대칭적 전쟁이 가장 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예를 들어 해커(hackers) 또는 크래커(crackers)들에 의해 세계 주요기관의 웹서버의 작동이 정지된다거나 웹사이트가

37) David Rothkopf, "Cyberpolitik: The Changing Nature of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Ronald J. Deibert, "Circuits of Power: Security in the Internet Environment," in James Rosenau and J.P. Singh(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Albany, NY: SUNY Press, 2002), 115~142쪽.

해킹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베이스의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기타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스킬을 슬기는 10대들의 장난거리였던, 이러한 사이버 테러의 행위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는 단체나 국가들에 의해 조직화되고 물질적 지원을 받아 국가 간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테러의 경우와 더불어 영토성에 기반을 둔 국가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의 예는 전자상거래에서도 찾아진다. 사이버공간의 전자상거래가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초국가적으로 발생한 전자상거래의 물리적 장소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탈장소성은 근대 이래 영토국가에 의해 행사되어온 조세 관할권에 도전을 제기한다. 인터넷을 환경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소득을 발생시킨 상행위와 구체적인 장소와의 연결고리를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리적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판별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만약 이러한 일차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도 사이버공간의 수많은 노드(node)를 거치면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초국가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 창출의 행위를 영토적 조세관할권에 의해 구분하고 누가 세금을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sup>38)</sup>

국가의 능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또 다른 예는 전자적인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다. 실제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들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들 전자화폐가 갖는 의미는 기존의 화폐수단에 단순한 유동성을 첨가한다

38) Stephen J. Kobrin, "Electronic Cash and the End of National Markets," *Foreign Policy*(Summer 1997), 74쪽.

는 차원을 넘어서 영토국가의 화폐정책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으로서 작용한다는 데에서 찾아진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화폐 흐름에 대한 디지털 정보는 국가가 규제자로서 나서서 통제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호 작용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일차적으로 금융행위와 기타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적 금융행위가 국경을 가로질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질 경우 국내법에 기반을 둔 국가의 화폐 정책적 통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 쉽다.<sup>39)</sup>

전자상거래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국가의 정보통제 능력과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독점적 창구의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인터넷이라는 탈집중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국가에 의한 정보통제의 가능성과 효과를 상쇄하는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하이퍼텍스트에 기반을 둔 www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자유답론을 유통시키는 새로운 문화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인터넷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는 달리 정보의 발신자가 어느 한 국가의 영토 관할권 내에서가 아닌 세계 어느 곳에 서라도 자기만의 신문사나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탈집중된 환경을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패킷 스위칭의 경우도 다수의 이용자들 간의 정보 흐름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터넷 기술의 요소이다.<sup>40)</sup>

39) Eric Helleiner, "Electronic Money: A Challenge to the Sovereig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1(2)(Spring 1998), 388~389쪽.

40) Ingrid Volkmer, "Universalism and Particularism: The Problem of Cultural Sovereignty and Global Information Flow," in Brian Kahin and Charles Nesson(eds.), *Borders in Cyberspace: Information Policy and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Cambridge, MA: MIT Press, 1997), 48쪽; A. Michael Froomkin, "The Internet as a Source of Regulatory Arbitrage," in Brian Kahin and Charles Nesson(eds.), *Borders in Cyberspace: Information Policy and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Cambridge, MA: MIT Press, 1997), 129~130쪽.

인터넷의 독특한 기술적 속성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정보능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또 다른 예는 암호기술의 광범위한 확산이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정교한 암호기술을 독점적으로 개발 통제해 왔다. 여타 민간 행위자들에 비해 국가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게 한 원천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점차로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국가 감시능력(surveillance capacity)의 핵심으로서의 정교한 암호기술체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종종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얻기도 한다. 이러한 암호기술에 대한 수요는 상업적 목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암호기술을 통한 비밀성과 익명성의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종종 범죄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국가라도 풀 수 없는 암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정보교환의 통제나 범죄행위에 대한 추격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인터넷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의 능력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심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국민 정체성(nationality)을 잠식하려는 조짐이다. 소위 ‘활자 자본주의(print capitalism)’에 대한 근대적 국민 정체성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역사적 상호관계는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서의 활자매체의 상용화는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물적 기반을 제공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활성화와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인해 국민 정체성을 대체 내지는 보완하는 사

이버공간의 새로운 정체성의 등장이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네트상의 노드(node)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네트워크 정체성의 ‘노드 정체성(nodality)’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사실 인터넷·여타 디지털 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을 국민국가의 테두리로부터 끌어내어 글로벌한 노드 정체성의 영역으로 초대한다. 노드 정체성은 집단의 정체성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기저에 깔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공간의 국민 정체성은 웹사이트들을 통해 창출되는 ‘사용자 정체성’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사이버공간에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은 실명이나 국적이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정체성이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가 그 관리능력의 약화 속에서 기존의 추권적 영도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소위 사이버공간에서의 ‘버추얼 국가(virtual state)’의 등장 가능성이 그것이다. 버추얼 국가란 영토에 기반을 둔 국가의 제반 능력과 정체성이 탈색된 형태의 국가이다. 사이버공간의 버추얼 국가는 실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한다. 버추얼 국가는 종래 현실공간에서의 국가가 담당했던 ‘통제기능’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가 전문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서의 ‘관리기능’을 이끌어 낸다. 예를 들어 버추얼 국가는 물리공간의 영토를 획득하거나 대량의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영토의 경계 안에 자본과 노동과 정보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버추얼 기업(virtual enterprise)의 분부처럼 버추얼 국가의 정부는 사이버공간의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한 정보유통의 노드(node)를 제공하며, 안보환경의 창출을

41) R. J. Deibert, "Circuits of Power: Security in the Internet Environment," in James Rosenau and J.P. Singh(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Albany, NY: SUNY Press, 2002), 115 ~ 142쪽.

42)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London: Verso, 1983).

43) Timothy W. Luke, "From Nationality to Nodality: How the Politics of Being Digital Transforms Globalizatio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September, 3-6, 1998).

44) 김상배, 「분화산업과 정보문화」, 하영선 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로 넘어서 지식국가로』(풀빛, 2004), 149~160쪽.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결정하는데 보다 폭넓은 관심을 가진다. 만약에 이렇게 도출된 베헤럴 국가가 출현한다면 이는 영토성으로부터 국가의 해방이 야기하는 논리적 결과물일 것이다.”<sup>45)</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가 기존 영토국가의 약화에 새로운 도전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국가(real state)’로서의 영토국가가 담당했던 전통적 기능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기에는 유보해야 될 사항이 있다. 따지고 보면 일천한 정보화와 인터넷의 역사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찾기는 시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사이버공간에서 주권국가가 차츰 ‘실제화’되는 과정에 접어들었으며, 그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자와 소비자의 보호, 사이버공간의 유해 사이트나 비윤리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공정한 규제가, 범죄를 조장하는 무질서 상태보다는 낫다는 발상이 깔려 있으며, 더 나아가 만약에 그러한 공정한 규제를 담당할 주체가 있다면 이는 국가의 몫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이 예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목이다.

#### 4 맺음말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세계정치질서 변화의 핵심은 세계 정치의 권력자원과 그 작동 메커니즘의 변형과 지난 수백 년간 세계정치질서의 운영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국민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재조정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기술·정보·지식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권력의 부상과 네트워크형의 세계정치 단위체의 등장이라는

45) Jerry Everard, *Virtual States: The Internet a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현상이 군사·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세계정치질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세계정치의 권력 이동과 국민국가의 재조정을 국제정치학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보 산업과 사이버공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계정치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IT는 단순한 도구나 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구성적 요소로서의 역할을 함은 물론이다.”<sup>46)</sup>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화 시대의 세계정치질서 형성에 있어서 미국이 오프라인에서의 ‘경성 권력’을 바탕으로 온라인의 ‘연성 권력’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정보화 시대 세계 지식구조의 사실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산업과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의 사례는 미국의 지식 패권(knowledge hegemony)이 차지하는 세계적 위상의 단초를 엿보게 해준다. 정보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세계정치의 전 영역에 있어서 미국은 기술·정보·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공유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롭게 짜여지는 21세기 탈근대 세계정치질서의 핵심에서 있다.

아울러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정보세계정치의 과정에는 미국이라는 국가 행위자가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보세계정치의 장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NGOs)들이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복수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 시대의 권력 이동 과정에 관통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재조정 과정, 즉 기존의 주권적 영토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네트워크 국가의 등장’ 과정에 유의해야 한다.

46) 김상배,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본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2003년 겨울호), 33~58쪽.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 시대의 세계정치질서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은 우선 부국강병적인 세계정치의 목표설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권력의 자원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권력의 작동메커니즘에 우리 자신을 익숙케 하는 쪽을 잡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존공영의 목표를 조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패권진영과 이에 대한 대항진영의 구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묘미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세계정치 행위자로서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 국가'를 추구하는 글로벌 및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대외전략이 함께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국가 중심적인 추진 주체 설정을 넘어서 정부 부처간 및 정부-기업-시민사회 등의 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21세기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새로운 문명표준(standards of civilization)으로서의 지식과 네트워크의 세계정치에의 적응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21세기 세계정치질서의 변화는 지난 100여 년의 것과는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권력과 주체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만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지식과 네트워크 정치가 부과하는 도전은 19세기의 근대적 도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밀려온다. 그렇다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19세기 말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 뻔하다. 21세기를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19세기 문명표준을 따라잡지 못해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를 극복하는 길은 새롭게 등장하는 권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국형 대응전략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19세기 후반 새로운 표준으로서의 근대 과학기술문명의 전파에 둔감하게 반응했듯이, 지식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권력의 등장에 대해서도 그리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는 못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특히 우리는 지식이라는 변수의 21세기 국가전략적 함의에 대해 다소 편협한 수준의 이해를 내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여태까지의 정보화 전략은 경제·산업전략의 셋방살이 신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좁은 의미의 IT전략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식의 세계정치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역량을 결집한다고 할지라도 지식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해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롭게 권력을 창출하려는 야심에 찬 계획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어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고 어디부터는 '코리언 스탠더드(Korean standards)'를 고집할 것이냐는 '수용과 대항의 균형점'을 찾는 일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배, 「문화산업과 정보문화」, 하영선 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풀빛, 2004, 149~160쪽.
- \_\_\_\_\_, 「사이버 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유석진 외,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 여섯 가지 쟁점과 미래전략』, 한울, 2003, 170~218쪽.
- \_\_\_\_\_,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국가전략》, 8(2), 2002, 5~27쪽.
- \_\_\_\_\_,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2001, 305~330쪽.
- \_\_\_\_\_,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2003 겨울, 33~58쪽.
- \_\_\_\_\_, 「정보화 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2001 겨울, 359~376쪽.

\_\_\_\_\_, 「정보화 시대의 지식구조: 수진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 2004 가을, 256~276쪽.

\_\_\_\_\_, 「정보화 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6(3), 2002 가을, 269~288쪽.

\_\_\_\_\_, 「정보화 시대의 한글 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7(1), 2003 봄, 409~429쪽.

\_\_\_\_\_,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1), 2004 3월.

\_\_\_\_\_, 「지적 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2002 7월, 111~130쪽.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1983.

Arthur, W. Brian, "Increasing Returns and the New World of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96, 100~109쪽.

Baylis, John and Steve Smith(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Cowhey, Peter 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s: The Political Roots of Regimes for High Techn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 Spring 1990, 169~199쪽.

Danitz, Tiffany and Warren P. Strobel. "Networking Dissent: Cyber Activists Use the Internet to Promote Democracy in Burma," U. 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3, February, 2000. [http://www.usip.org/vdi/vdr/vburma/vburam\\_intro.html](http://www.usip.org/vdi/vdr/vburma/vburam_intro.html)(검색일: 2002년 4월 14일).

Deibert, Ronald J., "Circuits of Power: Security in the Internet Environment," in James Rosenau and J.P. Singh(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Albany, NY: SUNY Press, 2002, 115~142쪽.

Drake, William J., "The Rise and Declin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 in Christopher T. Marsden(ed.),

*Regulat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2000, 124~177쪽.

Everard, Jerry, *Virtual States: The Internet and the Boundaries of the Nation-Stat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Foucault, Michel, *Power/Knowledge*, edited by M.C. Gordon, Brighton: Harvester, 1980.

Froomkin, A. Michael, "The Internet as a Source of Regulatory Arbitrage," in Brian Kahin and Charles Nesson(eds.), *Borders in Cyberspace: Information Policy and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Cambridge, MA: MIT Press, 1997, 129~163쪽.

Gilpin, Robert,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_\_\_\_\_,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Hart, Jeffrey A. and Sangbae Kim,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in Jose V. Cipro(ed.), *Of Fears and Foes: Security and Insecurity in an Evolving Global Political Economy*, Westport, Conn.: Praeger, 2000, 35~58쪽.

\_\_\_\_\_,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U.S. Competitiveness: The Rise of Wintelism," *The Information Society*, 18(1), February, 2002, 1~12쪽.

Hart, Jeffrey A., *Rival Capitali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Western Europ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Helleiner, Eric, "Electronic Money: A Challenge to the Sovereign Stat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1(2), Spring, 1998, 388~389쪽.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s*, 77(5), 1998, 84쪽.

Kim, Sangbae and Jeffrey A. Hart,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An Evolutionary Model of Change in the International

- Political Economy," in William R. Thompson(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1, 285~314쪽.
- \_\_\_\_\_,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Wintelism: A New Mode of Power and Governance in the Global Computer Industry," in James N. Rosenau and J. P. Singh(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Albany, N.Y.: SUNY Press, 2002, 143~168쪽.
- Kim, Sangbae, "Hardware Institutions for Software Technologies: The Japanese Model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9(1), June 2002, 17~36쪽.
- Kobrin, Stephen J., "Back to the Future: Neomedievalism and the Postmodern Digital World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1998, 361~186쪽.
- \_\_\_\_\_, "Electronic Cash and the End of National Markets," *Foreign Policy*, Summer 1997, 65~77쪽.
- Kumon, Shumpei and Akihiko Tanaka, "From Prestige to Wealth to Knowledge," in Takashi Inogichi and Daniel I. Okimoto(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 2,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64~82쪽.
- Luke, Timothy W., "From Nationality to Nodality: How the Politics of Being Digital Transforms Globalizatio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3-6, 1998.
- Mathews, Jessica T., "Power Shift: The Age of Non-State Actors,"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1997, 93~105쪽.
- Modelski, George and William R. Thompson,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6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 Nye, Jr.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Reinecke, Wolfgang H., "The Other World Wide Web: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Foreign Policy*, 117, 1999/2000, 44~57쪽.
- Rosecrance, Richard.,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99.
- Rosenau, James N. and J.P. Singh(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Albany, NY: SUNY Press, 2002.
- Rosenau, James N.,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995, 13~43쪽.
- \_\_\_\_\_,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Rothkopf, David, "Cyberpolitik: The Changing Nature of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1998, 325~359쪽.
- Ruggie, John G.,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 Winter 1993, 139~174쪽.
- Sell, Susan,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Strange, Susan, *State and Markets*, London: Pinter Publishers, 1988.
- \_\_\_\_\_,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Thompson, William R., "Long Wav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lative Decli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Spring, 1990, 201~233쪽.
- Toffler, Alvin, *Power Shift*, New York: Bantam Books, 1990; Peter F. Drucker,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 Business, 1993.